

「대한석탄공사의 안정적 경영 및 근로환경 개선 촉구」

建 議 書

2022. 2. 28.



태백상공회의소

■ 건의요지

-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석탄산업의 중심지로 국가성장과 서민난방을 위해 수 많은 산업전사들이 순직하였고, 전·현직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진·규폐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의 시행으로 석탄산업은 외면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석탄산업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태백을 비롯한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 33년이 지난 2022년 현재 국영탄광 3개와 민영탄광 1개로 총 4개의 탄광을 제외하고 모든 탄광이 폐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이 3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석탄산업을 대체할 만한 사업이 마련되지 않아 실직한 탄광 근로 노동자와 지역 내 일자리 부족으로 진출하는 인구에 교통, 교육, 의료, 복지,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타 시·군으로 이주하는 시민들까지 늘어나 인구감소와 일자리 부족, 지역 경기 침체의 딜레마에 빠져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폐광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현재에도 이렇다 할 대체산업이나 기업 유치가 되지 않아 아직도 석탄산업이 태백시 경제 25%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지역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으나, 탄광 근로자들은 정부의 감산·감원 정책에 빈번히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 목숨을 담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상의에서는 대한석탄공사의 안정적 경영 및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태백시를 비롯한 강원남부 지역주민과 지역상공인의 뜻을 모아 호소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태백시의 경우 지역 내 광산의 폐광과 정부의 감산·감원 정책으로 광산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면서 석탄산업 중흥기에 12만 명이 넘던 인구가 4만 844명(2021년 12월 기준)으로 30여 년간 2/3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 2016년 정부가 석탄공사를 기능조정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대한석탄공사 3개의 광업소 근로자는 5년간 36% 감소하였고, 2019년 태백의 마지막 민영탄광인 태백광업이 폐광하면서, 관내 장성광업소의 탄광근로자는 2011년 1,461명에서 2021년 546명으로 915명 감소하여 62.6% 감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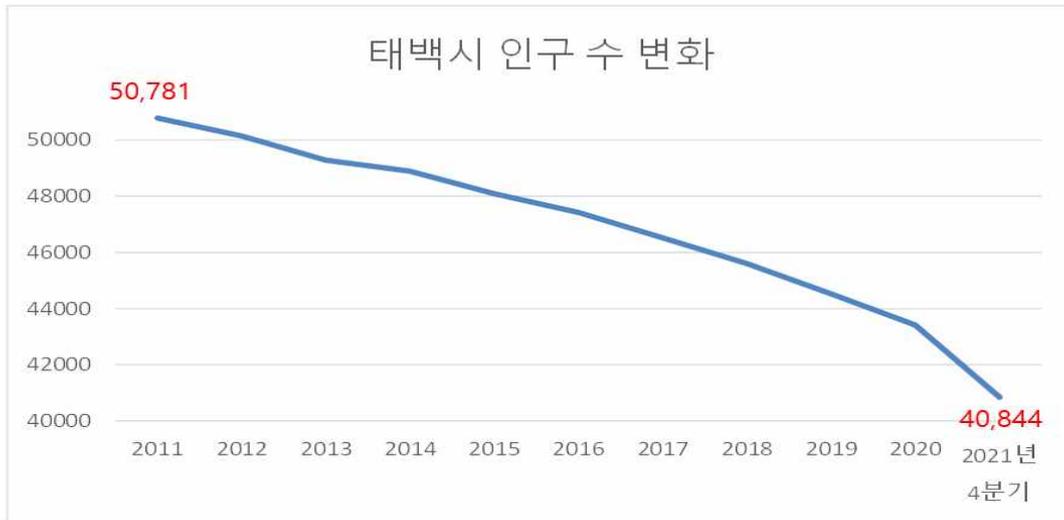
- 이후 10년간 인구감소가 가속화되어 지난 10년간 1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여 전국 80여 개 시 가운데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도시로 전락하였으며, 현 추세라면 2022년도에 인구 4만 명 붕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래 자료1,2 참고)

◎자료1. 2011~2021 10년간 관내탄광 근로자 수 추이



※ 태백상공회의소 2021년도 4/4분기 태백지역 경제동향 참조.

◎자료2. 2011~2021 10년간 태백시 인구 변화 추이



※ 태백상공회의소 2021년도 4/4분기 태백지역 경제동향 참조.

- 폐광 대비 신산업동력확보를 위한 대체산업 발굴로, 광산 퇴직 근로자들의 고용이 증계되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등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우선하는 폐광이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폐광 시 인구감소 가속화와 지역경기 침체로 폐광지역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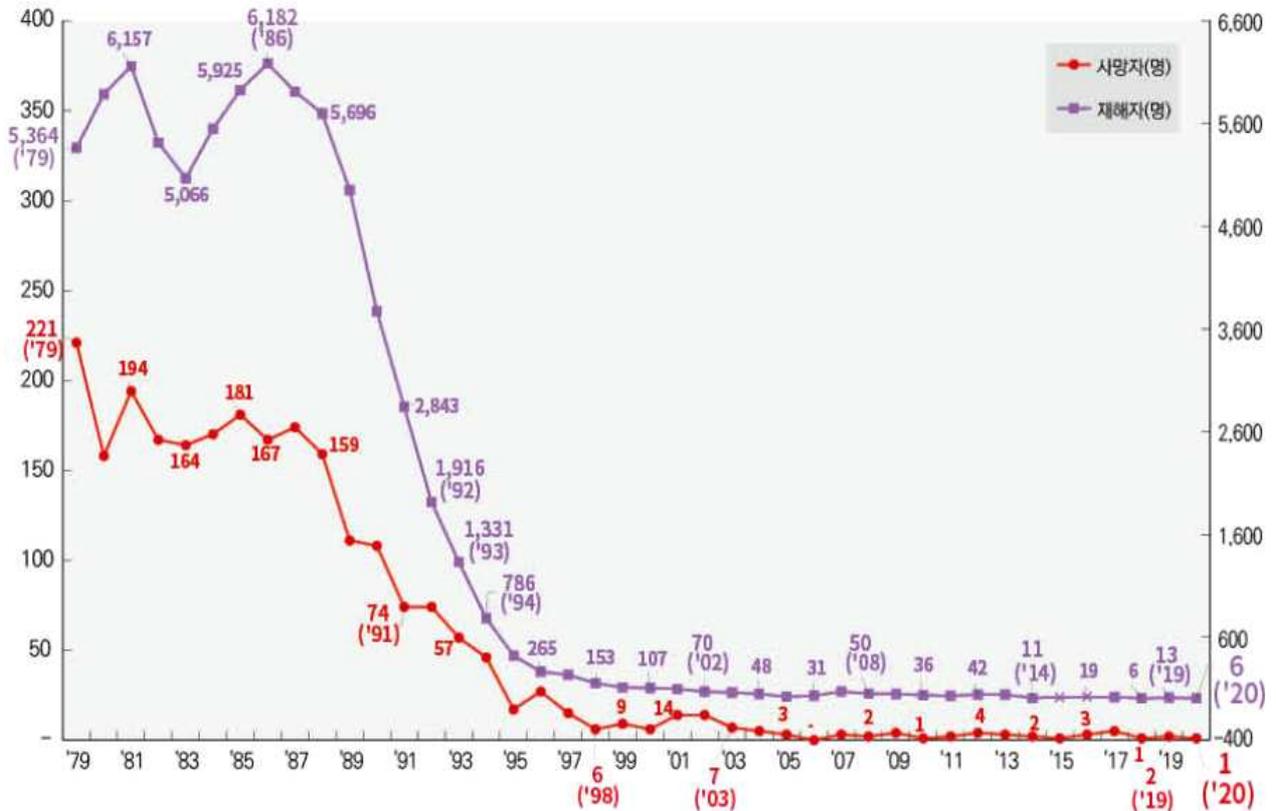
- 지난 수 십년간 국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며 교통의 발달과 삶의 질 개선 등 기업의 근로 환경이 좋아졌으나, 유독 탄광 노동자의 작업 환경 개선과 안전장치는 수 십년간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광산재해 사고가 현재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아래 자료3 참고)

장성광업소에서 지난 1994년 가스유출로 10명이 사망하였고 1997년 가스폭발로 6명, 1999년 가스누출로 3명, 2012년 메탄가스 폭발로 2명, 2016년 발파사고로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 갱내 가스누출과 노후된 시설로 사고시 인명사고로 직결됨에도 안전인력 충원과 가스배기장치확충, 가스감지시스템 추가설치, 안전장비 추가 구비 등 작업 환경 개선이 되지 않아 최근까지 석공 장성광업소 가스폭발사고

(2019.03.27.)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월에는 승강기 로프교체 작업 중 1명 사망(2019.05.05), 다음해 석공 도계광업소 매몰 사고(2020.06.26.)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료3. 1979~2020 연도별 석탄광산재해 발생추이



※ 한국광물자원공사 「2020년도 광산재해통계」 109 페이지에서 전재.

- 또한 현재 정부의 탈 석탄 정책의 일환으로 국영탄광에서의 생산량을 급격하게 감축하여, 향후 3년간 국영탄광인 3개의 광업소(대한석탄공사 장성 광업소, 도계광업소, 화순광업소)에서 연간 33만톤씩 생산 계획으로 지난해 41만톤 대비 10% 감소한 수치입니다.

3년 후인 2025년에는 20만톤까지 줄어들 전망으로, 급격한 감산·감원 정책에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석탄산업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할 것입니다.

■ 건의사항

첫째, 정부의 급격한 감산·감원 정책에 광산 근로자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퇴직 후 처해질 생계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광산근로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요청한 직접부 근무자를 제외한 간접부 근무자의 폐광대책비 일부 삭감요청의 철회와 폐광대책비 인상과 더불어 근로자가 요구하는 특별 위로금 근로자 1인당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담보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으로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50명 이상의 인력 충원, 가스배기 장치확충, 가스감지 시스템 추가설치, 안전장비 추가 구비, 노후 시설 정비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셋째, 무리한 폐광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현재 3개 국영 탄광에서 민수용으로 생산하는 33만톤 이외 발전용 석탄 10만톤 배정하여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고, 퇴직 광산근로자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신산업동력확보와 고용승계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한 후에 폐광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 남부 폐광지역 주민과 지역상공인의 뜻을 모아 호소하오니 특단의 조치를 바라 마지않습니다.